



2026. 9. 14 (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과감한 변화·세대교체 필요"

연합뉴스 <https://zrr.kr/PmmlnT>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추천

작년 3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차례로 연임에 성공한 점을 고려하면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 좌절은 이례적인 상황

은행 마통 잔액 70조 육박...계좌 제자리인데 빚만 6조 ↑

연합뉴스 <https://zrr.kr/ud6Pqh>

은행권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6조원 넘게 늘어 70조원에 육박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에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 말 수준으로 대출 잔액이 늘어난 가운데 금리는 당시보다 크게 높아져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무거워진 상황

금융당국, 은행 자본금 규제완화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춘다

경향신문 <https://zrr.kr/XQbshe>금융당국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패일러' 등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은행에 그간 부과했던 자본금·총당금 규제를 완화
중소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운전 자금을 보다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하나은행, 우즈벡 정부와 협약...중앙아시아 첫 교두보 확보

블로터 <https://zrr.kr/u3APgo>

하나은행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표사무소 설립을 추진하며 중앙아시아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금융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 안에 현지 거점을 확보해 한국 기업의 교역·투자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구상

'新조정유동성비율' 적용하니 116%→104% 뚫...증권사 유동성 관리부담 ↑

뉴시스 <https://zrr.kr/6JyhpD>

내년부터 전 증권사에 '신(新)조정유동성비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유동성 관리 부담이 커질 전망

신조정유동성비율이 적용되면 유동성비율이 기존에 비해 평균 12%p 감소

오후 4시~8시도 쉬지않는 증시... '24시간 거래' 불 지폈다

머니투데이 <https://zrr.kr/ihRJt4>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이 14일부터 개방되며, 특정 종목만 거래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ATS)와 달리 코스피와 코스닥 전종목이 거래 가능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24시간 거래시스템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번 애프터마켓의 안착여부가 중요

해약환급금준비금 손질...보험사는 '동상이몽'

전자신문 <https://zrr.kr/Kh15c9>금융당국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보험사별로 적립 규모를 대폭 낮추자는 의견부터 회사별 자율 적립, 현행 제도 유지까지 서로 다른 주장이 제시
준비금 부담과 법인세, 계약자 보호 등 보험사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견이 발생

1000조 굴리는데 투자엔 족쇄...보험사 '3% 규제' 풀리나

이코노미스트 <https://zrr.kr/S4fOlf>

K-ICS를 통해 투자 위험이 보험사의 요구자본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투자 규모 자체를 미리 제한하는 사전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대

금융당국도 최근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 검토에 들어가면서 자회사 투자한도 등이 주요 개선 대상으로 거론

비자 "스테이블코인 카드 결제 1년새 15배 증가"

헤럴드경제 <https://zrr.kr/xZHPRK>실물연계자산(RWA) 등 토큰화 자산을 현실 경제에서 활용하려면 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기존 카드·정산망을 연결해야 한다는 업계 제언
온체인에서 보유한 자산을 기존 결제 인프라를 통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토큰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설명

가상자산 침체장에...5대 원화거래소 잠든 가상자산 12.8조원

이데일리 <https://zrr.kr/y7BBOp>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이 침체되면서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정이 1600만개 이상으로 전체 계정의 60.7%

이들 계정에 남아 있는 가상자산 평가액만 12조8000억원 수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